



협회는 2009년 벤처생태계 활성화 논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28일(수)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응모작을 모집,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7개 논문에 대해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2명) 각 200만 원, 장려상(3명) 각 100만 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영예의 대상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전략과 정책 지원”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윤준(부연구위원) 씨가 선정되었다.



이어 최우수상은 “기업전략과 최고 경영자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정호(박사과정) 씨가, 우수상 2편은 (주)크레파트너스의 김복수(선임컨설턴트) 씨와 명지대학교의 한복희(학부과정), 한양대학교의 구수지(학부과정) 씨가, 장려상 3편은 정치영(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 윤종우(단국대학교 석사과정), 강원진(광운대학교 박사과정) 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논문 공모전은 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벤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원 교수(세종대)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제안을 하는 보고서 형식의 연구에서부터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문이 응모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벤처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높이고 ‘벤처 knowledge’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한국 벤처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문 공모전 시상식 후에 응모 시상작 중 우수한 3개 논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입상자, 교수, 학생 및 일반인 등이 참여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마당을 개최하여 벤처육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대상 논문 요약**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전략과 정책지원**  
**Technology strategy by growth stage of Korean**  
**venture companies**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창업단계에서는 시장성 있는 기술의 빠른 획득이 중요, 성장단계에서는 내부 연구개발 역량 집중, 성숙단계에서는 내부기술개발과 외부기술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 창업단계-사업화지원, 성장단계-R&D연계 수출지원, 성숙단계-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이 보다 효과적

기술기반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벤처기업은 자원의 부족, 합리성·정통성의 결여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기존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벤처기업은 비즈니스 사회에서 합리성·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은행대출을 통한 재원확보의 통로도 넓힐 수 있다. 또한, 기업공개는 투자자들에게 자금회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이익과 같은 전형적인 성과의 틀을 적용하기 힘든 벤처기업의 성과의 척도로 기업공개 여부가 사용되어진다.

정부는 1997년에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확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약 1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일차적 성공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코스닥 상장은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성장단계에서의 자금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정책기금·용자 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엔젤투자,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고위험 신생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을 앞당김으로써 죽음의 계곡의 폭을 줄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기업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기업의 기업공개를 앞당길 수 있는 전략, 특히 기술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함에 있다. 기술획득의 원천에 관한 기술전략 즉, 자체기술개발과 외부기술도입 중 어느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개방형기술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에 더욱 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기업성장모형을 기술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체기술개발과 외부기술도입 간의 선택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벤처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벤처기업들의 특성 및 애로사항을 성장단계에 따라 분석하였고, 성공한 벤처라 할 수 있는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의 IPO를 위한 기술전략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단계에서는 기술획득 경로(자체기술개발 혹은 외부기술도입)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빨리 시장성 있는 기술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하다. 성장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개발 혹은 도입한 기술을 개량, 발전시켜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므로 내부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성숙단계에서는 향후 성장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기술개발과 외부기술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3단계 기술전략은 자체기술개발과 외부기술도입을 기존의 대체적 관점인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전략의 단계적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성공 확대를 통한 벤처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창업단계에서는 금형제작, 성능 개선, 디자인 개발 등 제품 개발에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지원, 성장단계 벤처기업에는 R&D연계 수출지원, 성숙단계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